

# 밥만 먹고 사나요?

김 경 애/한겨레신문 민권사회1부 여성공동체팀장

**내**가 사는 동네는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이다. 민가래야 열두어채 남짓 뿐이고 그나마 서울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두어 몇 년째 폐가로 방치해 놓은 집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어 한적하기 그지 없는 시골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동네 아이들은 내 어릴 적과 마찬가지로 시골스럽게 자라고 있다. 강아지들과 뽕박질도 하고, 마당에서 불놀이도 하고, 뒷산에 칩뿌리를 캐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놀고 떠돌고 싸우며 지낸다.

그런 어느 날 밤, 때아닌 119 구급차의 사이렌이 조용한 마을을 깨웠다. 이웃집 2층에 사는 내 꼬마 친구가 배탈이 나서 부른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돌아온 아이와 그 엄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이웃들에게 어떤 일인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장이 꼬였거나 어졌거나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아이는 그 날로부터 1주일 가까이 학교도 온 채 방안에 누워 지냈다.

마침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그 엄마가 뒤늦게 들려준 진짜 이유는 이랬다. 장이 꼬인 게 아니라 변비가 너무 심해서 관장을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고기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밤 프라이드 치킨이나 햄버거, 소시지, 피자 등을 배달시켜 먹어야만 잠이 들었다고 했다. 당연히 김치나 야채는 싫어해서 잘 먹지 않았을 터, 아이는 며칠째 변을 보지 못한 채 먹기만 했으니 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셈이다.

“혹시 급성맹장염 아닌가요?”라며 걱정스럽게 묻는 엄마를 뻔히 쳐다보던 야간 당직 의사는 혀를 차며 도대체 뭘 얼마나 먹었느냐고 물었다.

아빠의 장기 유학으로 몇 년째 엄마하고만 지내는 데 엄마마저 늘 일에 쫓겨 밤늦게 퇴근하는 까닭에 아이는 엄마만 보면 뭉치를 사달라는 것으로 ‘애정 표현’을 요구했고,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두말없이 원하는 것을 사다 주었다. 아이가 낮에 뭉치 얼마나 먹었는지 헤아려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당직 의사말로는 요즘 그렇게 편식, 대부분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지나치게 많이 먹고 배변이 제대로 안돼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이 심심찮게 있다.

한바탕 혼쫓이 난 그 아이는 이제는 스스로 김치와 야채 반찬을 골고루 먹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맛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을 돈으로, 좋아하는 음식으로 손쉽게 대신하다보니 생겨난 일종의 ‘애정결핍 현상’이 아닐까? 태어나자마자 엄마젖과 따뜻한 체취보다는 분유맛과 딱딱한 플라스틱 젖병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인스턴트 음식을 편식해 이처럼 엉뚱한 고생을 해야 하다니,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새삼 요즘 아이들이 안쓰러웠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자상한 보살핌이란 생각이 절실하다. ■■■■